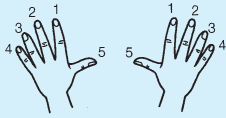




수화를 배워봅시다



Tip 수화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과 동작의 세기, 길이에 따라 나타나는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. 음성언어에서 음의 고저, 장단 및 강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과 동작 등으로 표현한다면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감수 **서울아산병원 수화동호회**

마스크 사용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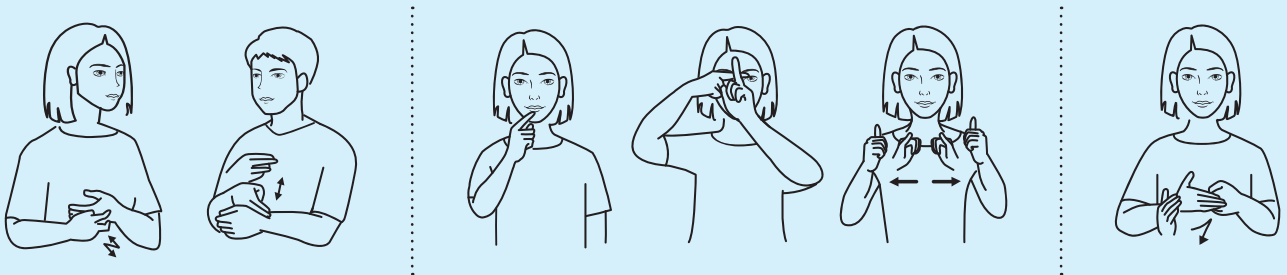
〈마스크〉 주먹 전 양손의 1·5지를 펴서 입 앞에서 좌우로 약간 벌리며 1·5지를 붙인다. 즉, 네모를 그린다.

〈사용〉 오른손의 1·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다. 동그라미 끝으로 왼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.

〈코로나〉 오른손으로 영어 C를 만들어 왼손바닥에 댄 뒤 벌린 왼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2회 반복한다.

〈막다〉 왼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,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. 그 바닥에 약간 굽힌 오른손 끝을 댄 다음 밖으로 밀어낸다.

의료진(의사, 간호사) 덕분에



〈의사〉 손등을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오른 주먹의 1·2지를 펴서 끝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,

오른 주먹의 1·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.

〈간호사〉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키고, 두 주먹의 1지로 '+'자 모양을 만들어 이마에 댄 다음,

두 주먹의 4·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좌우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.

〈덕분에〉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뗀다.